

채비

이효주

## S#1. 거실/밤

역수같이 비가 내리는 2월 밤. 옥순(73/여)이 거실에서 뒷집 지고 왔다갔다 한다.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모습. 빗소리 위로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겹친다. 못참겠다는 듯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옥순.

옥순: 언제 나올겨!

서영: 아 5분만!!

옥순: 안에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제?!

문을 벌컥 여는 옥순. 화장실 안에는 쪼그려 앉아 이불을 문지르고 있는 서영(17/여)이 놀란 얼굴로 쳐다본다. 문이 열림과 동시에 어떤 통이 바닥에 떨어져 뒹구르르 구른다.

옥순: ...싼 겨?

서영: 아니이... 뭘 쏟았는데... 식초로 지워진다고래...

옥순, 떨어진 통을 주워 들어 읽는다.

옥순: 풍당.. 츄잉 클리어 슬라임??? 너 또 그 콧물 같은 거 만지다가 그런 겨???

서영: 아니 실수로 쏟았어! 좀만 더 하면 지워질 것 같았던 말이야.(울상 짓는다)

옥순: 하이고 내 팔자야. 어차피 비와서 말리지도 못혀. 대야에 담가놓고 나온나, 내 일 빨구로.

## S#2. 안방/밤

스탠드 켜놓은 방.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 있는 둘. 옥순은 두꺼운 이불을, 서영은 여름 이불을 덮고 있다.

서영: 저 추운데 이불 같이 덮으실 분

옥순, 말 없다.

서영: 사랑스러운 손녀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불 같이 덮을 옥순 씨 어디 없나요~

옥순: 사랑스럽긴 개뿔. 니 업보다 이것아.

서영, 애교 부리며 할머니 품 안으로 들어간다.

서영: 할머니 화났어?

옥순: 차라리 잘됐구마. 이참에 겨울옷 빨래나 싹 하지 뭐.

서영: 그래~ 다 나의 큰그림이었다구

옥순, 등 돌려 이불을 혼자 덮는다.

서영: 아 농담농담~

투닥거리는 둘의 모습.

### S#3. 다용도실/오전

햇빛이 쨍쨍한 오전. 다용도실에서 빨래할 옷을 분류하고 있는 서영.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할머니 옷에서 현금 발견하고 눈치 보며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.

서영: 할머니! 외투는 세탁소 맡길 거지?

옥순, 말이 없다. 거실로 고개 내밀며 묻는 서영.

서영: 세탁소 맡길 거냐구!(성질내며)

옥순은 거실에서 붓글씨 쓰기에 열중이다. 불을 켜지 않아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온다.

서영, 텔레텔레 걸어가 구경한다.

서영: 옥순 씨 뭐 해?

옥순: 오늘이 입춘 아녀. 복 들어올라꼬 쓰는 거 아이가.

서영: 어영...그래? (관심없다)

옥순: .....(붓을 내려놓고) 햇빛 들 때 이불부터 빨지 뭐.

서영, 화장실에서 이불 담긴 대야 들고 다용도실(세탁기)로 가는데 옥순 말 건다.

옥순: 거 손빨래 해야 쓰겠구만. 이불 커가꼬 세탁기랑 같이 돌아가뿐다잉.

그때 끓고 있던 주전자에서 호루라기 소리 나며 김 빠진다. 옥순과 서영, 동시에 그쪽 쳐다본다.

### S#4. 빌라 계단, 낮

옥순은 끓는 물을, 서영은 고무대야에 이불을 넣어 한아름 들고 계단을 오른다.

서영: 우리도 큰 세탁기 좀 사자. 요즘은 건조까지 한번에 된대. 그러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 (계단 오르며 헉헉댄다)

옥순: 야 우리 집에 그거 두면,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.

### S#5. 빌라 옥상, 낮

빌라 옥상, 뭐가 자라고 있는지 모를 화단이 놓여 있고, 빨랫줄이 걸려 있다.

서영: 아니 옥순 씨, 인터넷에서 솜이불은 물로 빨면 안 된대

옥순: 이거 솜 아니여~ 구스여~

서영과 옥순, 이불 양 끝 잡고 먼지 털다. 끓여온 물을 붓는 옥순.

옥순: 뜨거우니까 떨어져있어

서영, 한 걸음 물러선다. 이불 담긴 대야 위로 김이 펄펄 나는 물이 쏟아진다.

옥순: 짝끔 식히고 하자잉

### S#6. 빌라 옥상, 낮

서영은 물 온도를 확인하려 쭈그려 앉아 물을 휘휘 젓고 있고, 옥순은 옥상 화단을 구경하고 있다.

서영: 할머니 뭐 봐?

옥순: 김옥순.

서영: (가볍게 한숨 쉬며) 옥순 씨~ 뭐 보고 있어~

옥순: 요것 봐라, 새싹이 텃어.

서영: 그거 뭔데?

옥순: 몰려~ 잡초겠지. (손으로 살살 건들며) 이놈도 겨울 넘겼네.

서영: 옥순 씨 이리 와, 물 좀 식었어.

### S#7. 빌라 옥상, 낮

옥순이 쭈그려 앉아 대야에 세제를 한껏 푼다. 손으로 휘휘 젓는다.

서영: 어우 그만그만. 맨날 세제 많이 푸네.

옥순: 거품 나는 게 이뽕께 그러지.

### S#8. 빌라 옥상, 낮

서영이 대야에 들어가 이불을 발로 질근질근 밟고 있고, 옥순은 주전자로 물을 조금씩 더하고 있다.

옥순: 좀 따시나?

서영: 아 발 시려 죽겠어.

옥순: 그러게 누가 콧물 쏟으라더나?

서영: 콧물 아니라고! (웃으며)

옥순, 거품을 살짝 떠 투덜거리는 서영에게 후후 날린다. 아이처럼 웃는 옥순.  
서영 그 모습에 피식하더니 따라 해보는데, 잘 안 된다.

옥순: 이거 고급기술이여~ 넌 배울라든 아직 멀었다잉

발끈하는 서영, 계속 해보지만 옥순에게 비눗물 뿌리는 꼴이다. 옥순도 서영에게 물 튀기며 장난치고.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둘.

### S#9. 빌라 옥상, 낮

옥순, 대야 들어 물 버린다. 서영은 지친 듯 바닥에 앉아 있다. 빈 대야에 이불 넣고 발로 밟으며 물기 빼는 옥순.

옥순: 원래 빨래는 말리는 게 제일 중요혀. 제대로 안 말리면 썩은 내 나부러.

어느새 서영은 옆으로 엎드린 듯 누워 있다. 발로 서영 쿡쿡 찌르는 옥순.

옥순: 한 번 쪽 짜면 끝잉께 어여 일어나.

서영과 옥순, 회오리 모양으로 비틀어 짰다. 물 먹은 이불 무겁고 커서 둘 다 비틀거린다.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.

서영: 할머니! 나 힘 완전 켜지?

물기를 짜다가 이불을 펼쳐 팡팡 툰다. 서영 시점에서,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불이 옥순을 가렸다가 보였다가 한다.

옥순: 오야~ 다 컸네

세 번쯤 털었을 때, 옥순이 있던 곳에 비눗방울이 수만 방울 일고 옥순이 사라진다. 이불은 힘없이 떨어진다.

(소리)

그 가운데서 할머니! 할머니! 외치는 서영의 목소리.

(장면)

비눗방울로 가득 찬 옥상.

옥순이 쓰던 붓글씨(立春大吉 建陽多慶)이 붙어있는 대문.

화단에 나 있는 작은 새싹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.

끝.